

너를 사랑

MARSA KOREA | 2016 12
MAGAZINE 제 2 호

“바다야! 올해도 수고했어,
우리 새해에도 안전한 바다를 위해 노력하자”

한국해양구조협회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다사다난했던 丙申年을
역사 속으로 마무리하면서
아쉬움도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내일이라는
또 다른 희망이 다가옵니다.
2016년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미련없이 떠나보내고
2017년도를 최고의 해로
준비했으면 합니다.
지난해에 보내주셨던 관심과
배려에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하옵니다.
희망찬 丁酉年을 맞아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오며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해양구조협회 임직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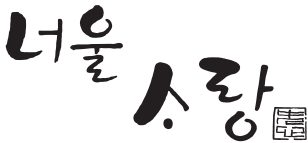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MARSА KOREA MAGAZINE

2016 12
제2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신정택
발행일 2016년 12월 23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 714-3695
FAX. 051) 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 463-5898



표지 제자 「너를 사랑」
바람에 일어나는 물결을 의미하는 '너울'과
봉사정신의 밑바탕인 '사랑'의 합성어로 해
양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해양구조협회
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담겨져 있다.

CONTENTS

Special Theme

- 04 총재신년사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바다 가족 여러분!
- 05 총재동정 세계자유민주주의연맹 봉사상 수상
- 06 제언 이제 우리바다의 사고는 우리 손으로
류찬열 |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 부협회장
- 08 칼럼 해양경찰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민흥기 | 한국해양구조협회 이사장

MARSА News

- 10 본부 뉴스
 - 1) 11차 이사회
 - 2) 민·관 협력 워크숍 / 2016년 대의원 총회
 - 3) 남부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4) 순직 해경 특공대원 눈물의 영결식
 - 5) 전국 지역대장 간담회
- 16 지부·지역대 뉴스
 - 1) 전국지부, 협회장 이·취임식
 - 2) 전국지부, 각 지역단체 및 기업과 업무협력 체제구축
- 통영구조대, 강진구조대, 여수구조대, 충청북부지부
 - 3) 전국 구조대 민·관·군 합동훈련실시
- 충청북부지부, 여수구조대, 포항구조대, 강진구조대,
통영구조대, 경주구조대, 완도구조대
 - 4) 익수자 구조활동에 나선 전국 구조대원들
- 포항구조대, 창원구조대, 통영구조대, 고흥구조대

MARSА Story

- 26 안전을 부탁해 수중·수색구조 합동작전 FTX
- 28 환경을 부탁해 국경을 넘은 해양쓰레기
- 30 공덕역 이야기
- 33 2016년 하반기 교육

MARSА Info

- 36 국내뉴스 세월호 사고 동원, 사상(死傷) 민간잠수사 보상금 받는다
- 37 어업현장 어디에서든 아프면 원격으로 진료 가능
- 38 낚시할 때 구멍조끼 착용 의무화
- 39 해상활동의 필수정보! 조류(潮流)를 읽는다

MARSА Notice

- 40 '잠수구조사' 신설
- 41 협회후원안내
- 42 각 지역 지부 및 구조대 연락처

총재 신년사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바다 가족 여러분!

힘차게 출발했던 2016년 한해가 지나가고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협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은 ‘붉은 닭의 해’로써 닭의 울음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듯 새로운 ‘깨달음’과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행운과 평안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정유년을 맞이하여 각자의 새해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목표를 향해 정진함으로써 소원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사무실 부산이전, 이사장제 신설, 지부 조직의 확대 개편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조직은 점차 세월호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있고 안정화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바다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이를 토대로 우리협회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협회 위상확립, 대원의 사기진작, 그리고 협회가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중심이 되는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예산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민·관 합동 워크숍 등을 정례화하여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방조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지부 및 구조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국내 유일의 ‘해양구조’ 법정법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산재한 민간해양구조세력을 한데 모으고 아우르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타 단체와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혁신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특히 우리협회의 존재이유로써 손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지부와 지역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정유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유년 원단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신 정 택



총재동정

신정택 총재, 세계자유민주주의연맹 봉사상 수상

▶ 신정택 총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서병수 부산시장(오른쪽에서 두번째), 김성태 수석부총재(오른쪽에서 네번째), 강병중 넥센그룹회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협회 신정택 총재(세운철강 회장)와 강병중 넥센그룹회장은 지난 11월 1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부 설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세계자유민주주의연맹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세계자유민주주의연맹 봉사상은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선봉에 앞장서고 총연맹 활동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출범하여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민족통일과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신정택 총재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겸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지역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꾸준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부산 아너소사이어티 100호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제언

이제 우리바다의 사고는 우리 손으로..



류 찬 열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 부협회장

Salvage란 해상에서 위험에 처한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여 재산을 보전하고 사고 선박에 의해 발생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며, 사고 선박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선박 해난 구조와 구난을 의미한다.

광의의 Salvage는 협의의 Salvage 또는 Emergency response와 Wreck removal로 구분되며 협의의 Salvage의 경우 선채 보험자가 구조 비용을 지불하고 Wreck removal의 경우에는 P&I Club이 구조 비용의 지불 주체가 된다.

Salvage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과 상업적인 부분이 충족 되어야 한다.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Salvage의 대상인 선박은 아주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까다로운 기준에 맞게 설계 및 건조되고, 다양한 종류의 선박들이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싣고 그에 따라 각 선박의 작동 원리 또한 각각 다르기 때문에 Salvage 작업 시 많은 기술 및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박들의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짧은 시간에 완벽히 검토 평가하여 성공적인 구난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업적인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Salvage의 계약이 불성공 무보수(No cure, No pay.)의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구난업자는 상업적인 부분, 즉 선채, 화물, 위험도, 작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맞춰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들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언뜻 보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 상업적인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Salvage 작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

위의 두 가지 부분과는 별도로 추가되는 사항은, 구난업자는 구난작업 수행 시 환경 오염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 환경오염에서 야기되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적 인양 방법을 택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선박의 대형화와 고속화에 동반하여 해상 운송화물 중에 위험 유해화물(HNS, Hazardous & Noxious Substances)의 대량운송이 현실화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해 액체물질 운반선 중 HNS 운반선의 비율이 2009년부터 매년 30%를 초과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HNS의 해상운송 사고는 발생 즉시 화재나 폭발, 독극물 분산 및 유출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 및 장비, 해양 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구난업체가 육성되어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그 후로 2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 선체 인양이 완료되지 못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구난 업체의 현실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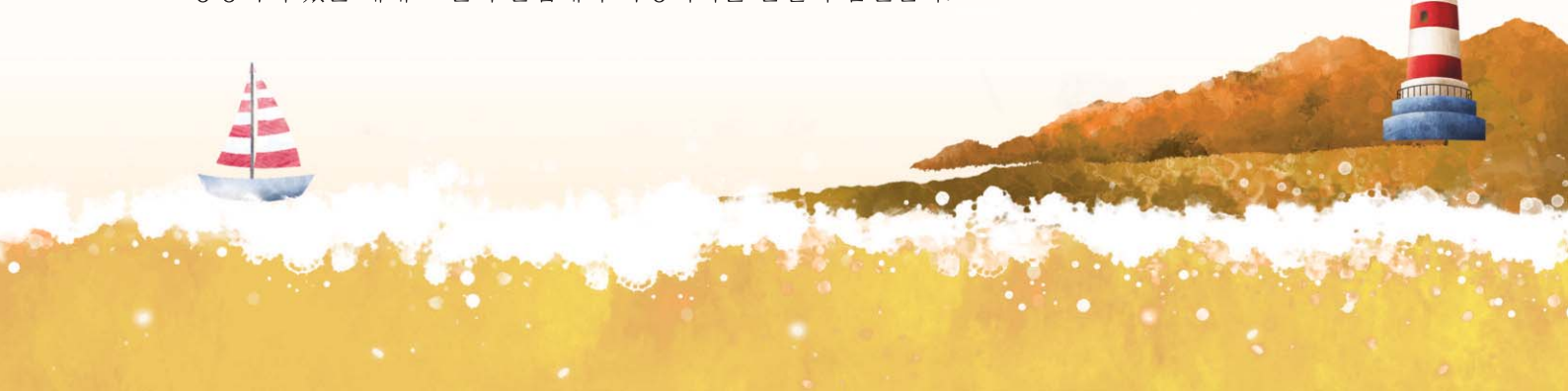
국내 구난업체의 현실을 살펴보면 우수한 외국의 구난업체와 비교해 볼 때 규모나 실력면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구난작업의 공익적 성격, 언제 있을지 모르는 해양사고를 대비하여 장비와 훈련된 인력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민간선박구난 회사 또는 국가차원의 구난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손해보험사들과 선사, P&I Club 등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출자한 Nippon Salvage라는 구난회사를 설립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출자한 보험사에 가입된 선박이 세계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Nippon Salvage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구난작업을 수행토록 하여 많은 경험과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세월호 인양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하이 Salvage는 중국 국가기관인 교통부의 한 부서로서 대형구난장비와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조직이다.

세월호 인양 작업은 조석간만의 차에 의한 강한 조류와 불량한 시야 등 주변 해양환경을 감안할 때 구난업체로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이나 현재 상하이 Salvage와 함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구난 경험이 없는 다른 분야의 회사로서 국내 구난업체 육성과는 그 의미가 달라 안타깝게 생각한다.

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로 선박해난구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시점에서 현장중심의 해난구조 사례를 위주로 해난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도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부족하고 미력하나마 “현상 사례 중심의 해난구조 이해와 실무”라는 저서를 발간하였다.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 무력감,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대로 된 구난업체가 육성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칼럼

해양경찰의 위상제고_{位相提高}를 위하여

민 홍 기

한국해양구조협회 이사장



지난 10월, 서해상에서 우리 해양경찰의 고속단정_{高速短艇}이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동안 중국 어선들의 도_度를 넘는 불법조업과 이를 단속하는 우리 해양경찰에 대한 야만적인 무력행위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급기야 4.5톤짜리 단정을 100톤가량의 중국 어선이 들이받아 침몰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었지만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권위와 공권력이 여지없이 깃밟혔는데도 자위권_{自衛權}조차 행사하지 못한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바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_{海洋主權}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의 현주소며 실상_{實像}이다. 돌이켜보면 2014년 4월, 씨맨십_{Seaman-ship}은 물론 리더십_{Leader-ship}도 없고 위기대처능력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소양_{素養}조차 갖추지 못한 선장과 선원들로 인해 발생한 세월호사고의 후유증이 오늘날 해양경찰의 위상과 역할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과 관련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구조_{Rescue}와 구난_{Salvage}은 필연적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시차_{時差}를 두고 행_行해지기도 한다. 물적_{物的} 피해에 대응하는 구난은 상업분야로 발전하여 국내외적으로 전문업체가 성업_{盛業} 중에 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해야 하는 구조부문은 봉사와 헌신을 바탕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봉사단체나 국가의 몫이라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당연히 해양경찰과 비영리 법정법인인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최 일선에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오고 있다. 해양경찰의 18개 지방해양경비안전서가 권역별_{圈域別}로 구조구난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관할해역_{管轄海域}이 워낙 방대_{膨大}하고 해안선 또한 길어 소위 골든타임_{Golden-Time}에 사고현장에 출동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전국 항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국해양구조협회소속의 구조대(47개)와 구난대(37개)가 사고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대처_{初動對處}에 임 하는 등 해양경찰과 협업_{協業}하고 있다.

해양주권수호가 해양경찰 존재이유의 첫 번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조구난업무가 해양경찰의 주된 임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월호사고 여파로 구조구난분야가 자못 크게 부각_{浮刻}되긴 했지만 누가 뭐래도 해양경찰이 설립되고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_{守護}하는 것이다. 지금의 해양경찰은 1953년 내



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출범한 해양경찰대가 그 효시 嚆矢다. 당시 해양경찰대편성령(대통령령 제844호.1953.12.14)을 보면 『인접해양주권선내의 해양경비에 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략)-- 내무부 치안국 소속하에 해양경찰대를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당초 설립목적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해양경찰 본연의 임무는 해양경비 즉 해양주권수호에 있음은 불문가지 不問可知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을 도외시 度外視한 채 세월호사고 이후 언론의 왜곡 보도 歪曲報道와 국민들의 오해, 이에 편승 便乘한 정치권과 정부의 과민반응 過敏反應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체라는 비운 悲運을 맞이하였다. 본의 아니게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해양경찰은 재난과 재해 전담부처인 국민안전처에 흡수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본연의 임무인 해양주권수호는 뒷전으로 밀리고 안전과 구조구난이 강조되는 기현상 奇現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해양경찰의 해양주권수호에 필수인 진압전투장비 예산은 2012년 95억원, 2013년 81억원이었다가 국민안전처에 흡수된 후에는 연간 20여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축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중국 어선들이 서해바다를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들며 어족자원을 마구잡이로 휩쓸어 가는 바람에 우리 어민들은 생계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해양경찰을 독립시키고 확대하여 더욱 강한 조직으로 변모시켜야!

설령 세월호사고 당시 해양경찰의 잘못이 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이를 거울삼아 시정하고 보완하는데 활용해야 할 사항이지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式의 처방은 또 다른 우 愚를 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해양경찰을 재난과 재해 전담부처로부터 독립시켜 본래의 모습으로 부활시켜야 한다. 그 다음, 부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강한 조직으로 발전하게끔 격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해양경찰로 하여금 그 본연의 임무인 해양주권수호를 통해 중국 어선으로부터 어족자원과 어민을 보호하고 우리 해경대원들을 신변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일 것이다. 나아가 침몰하는 여객선을 눈앞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비극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게 하는 첩경 捷徑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흔히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 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바다영토인 해양의 확보를 위해 사력 死力을 다하고 있다. 한중일 韓中日 삼국 간에 얽혀있는 독도, 이어도, 조어도 문제 또한 같은 맥락 脈絡이다. 바다를 천시 賤視한 민족의 장래가 어찌하라는 것은 인류역사가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위정자 爲政者들은 이러한 해양의 중요성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해운과 물류 物流의 문외한 門外漢들이 국내 1위, 세계 7위, 70년 역사의 국가 기간산업 基幹產業인 한진해운을 사라지게 했듯이 해양주권수호와 거리가 있는 소방과 재해재난 전담부처에 해양경찰의 장래를 계속 맡겨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2017년 대선 大選의 해가 밝아오고 있다. 이는 해양경찰의 독립을 위한 대망 大望의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른다는 의미다. 2016년 세모 歲暮에 즈음하여 바다의 수호신 守護神 해양경찰의 독립을 염원 念願하고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해양인 海洋人 모두가 힘과 지혜로 대동단결 大同團結하기를 기도해 본다.



제11차 이사회 개최



◀ 제11차 이사회 회의 모습

우리협회는 지난 11월 22일 부산 목장원에서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해 부총재, 이사 및 지부협회장 등 총 34명(참석17명, 위임17명)의 임원진이 참석하였다.

주요안건은 주요규정 일부 개정 등의 건, 구조대 설립 및 재정립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임원변경, 총회 부의안건 등이 심의되었다.

주요규정 일부 개정의 건에서는 정관 외에 총 35개의 규정 중 16개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적용가능 하도록 새롭게 개정하고, 민간자격교육 관리규정에 관해 1개의 규정을 추가로 제정하였다. 또한 협회규모에 맞지 않아서 설립 이후 적용 실적이 없거나 활용 불가능

한 규정 15개를 폐지함으로써 협회는 정관 외 최종 21개의 규정으로 운용하게 되었다.

임원변경과 관련하여 부총재 3명, 이사 4명, 협회장 6명 등이 새롭게 선임되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이사회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전국 지부들이 구조활동 및 각종 봉사활동을 진행하는데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민홍기 이사장은 우선 정관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하였고 수상구조법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 국회 등 향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해양에서의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2016년 대의원 총회



워크숍 기념촬영 ▲

우리협회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께 지난 11월 22일 부산 목장원에서 해양에서의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민·관 협력 워크숍에는 우리협회 신정택 총재를 비롯한 임원진 및 구조대원 총 70여명이 참석하였고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이원희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박세영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여인태 해양수색구조과장, 이창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등 총 10여명의 해양경찰 수뇌부가 참석하여 상호 협력을 도모하였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해경에서는 국가재정 지원 및 국·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상구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일반인도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대 검토 중이다.”라며 “구조협회에서도 해경추진정책방향에 맞추어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및 선박예인개선사업 등에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MARSA NEWS | 본부 뉴스 |

이어 교육훈련, 해수욕장봉사활동, 민·관 합동훈련 분야의 업무유공자 5명에게 국민안전처 장관의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같은 날, 우리협회는 2016년 대의원 총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대의원 총회에는 신정택 총재 및 임원진, 각 지역 협회장 및 지역대장, 대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주요안건으로는 제10차 이사회와 제11차 이사회에서 심의된 임원변경의 건, 정관 개정(안),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등이 상정되었고,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대의원 총회에서는 새로 선임된 부총재, 이사, 협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되었다.

신정택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협회의 위상확립, 대원의 사기진작, 그리고 협회가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중심이 되는 기반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정부 예산지원을 숙원과제로 삼고, ‘수상구조사’ 제도의 시행 원년을 맞아 빠른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민·관 합동 워크숍 등을 정례회 하고 수상구조법 개정과 더불어 지방조례 표준안을 재정하여 지부 및 구조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감사장 수여



▲ 대의원총회 기념촬영

| 감사장 및 임명장

- **감사장** 해양구조대원 교육훈련 : 최연순(마포구조대), 김창식(경주구조대)
 민·관 합동훈련 : 배한철(경남동부(특수))
 하계인명구조센터 봉사활동 : 양정모(거제구조대), 김홍철(부안구조대)
- **임명장** 부총재(3명) : 이용섭(한국해운조합 회장), 김종신(한국선급 경영기획본부장(회장 직무대행)), 우예중(부산항만공사 사장)

 이사(4명) : 박석영(㈜대저해운 사장), 방현우(㈜김제지평선마린리조트 대표이사), 임재택(한국해기사협회장), 임준택(대형선만수협조합장)

 협회장(6명) : 조병중(전남동부), 박승민(충청북부), 최대운(충청남부), 이동현(제주), 강두영(서귀포), 송주석(인천)



남부대학교와 상호교육 및 학술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 박광현 교수, 김옥환 교수(남부대국제수영장 운영본부장), 민홍기 이사장, 강웅 본부장 기념촬영 ▲

우리협회는 지난 11월 24일 남부대학교(남부대국제수영장·보건인력학과)와 상호간의 교육 및 학술연구 교류와 수영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남부대학교는 현재 10레인 경영풀과 8레인 연습풀, 다이빙풀, 워업풀을 갖춘 국내 최고 시설의 국제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중에어로빅, 생존수영, 교직원 직무연수, 잉글리쉬 수영캠프, 스킨스쿠버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물론 동아수영대회 등 국내외 대회와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의 훈련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주경기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구촌 최대규모로 열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으로 확정되었다.

금번 협약을 통해서 양 기관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교육실습장 및 기자재 공동활용, 남부대 응급구조학과 개설에 따른 현장실습교육 상호협력, 인명구조 및 스킨스쿠버 дай버 전문 교육현장실습 상호협력 등 교육과 학술연구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순직 해경 특공대원 눈물의 영결식

민간인 구조 중 순직한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김형욱(38)경위와 박권병(30)경장의 영결식이 11월 14일 오전 삼척시 동해해경본부 특공대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김경위와 박경장은 지난 11월 8일 강원 삼척시 근덕면 초곡항 인근에서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 근로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순직하였다.

이날 영결식에는 우리협회 민흥기 이사장, 김태곤 경북지부 협회장, 장태성 강원북부 협회장 등 임직원 7명이 참석하여 함께 애도를 표하였다.

박찬현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조사(弔詞)를 통해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한순간의 망설임

도 없이 달려갔던 당신들의 열정과 사명감은 우리에게 오랜 귀감으로 남을 것”이라며 “비통한 마음을 가슴에 묻고 그대들을 평온한 하늘나라로 보내려 한다”고 애도 하였다.

영결식은 조총(弔銃) 발사로 막을 내렸고 동료들은 화장장으로 떠나는 운구차를 향해 거수경례로 순직자들을 배웅하였다. 순직자들은 화장 후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 영결식장



▲ 헌화 후 묵념하는 민흥기 이사장과 직원들



전국 지역대장 간담회



◀ 간담회 기념촬영

우리협회는 지난 11월 12일 대전 태화장에서 ‘2016년 하반기 전국 지역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본회 임직원 3명, 구조대장 9명 봉사대장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인 ‘정관 및 중요규정 개정내용 설명’과 ‘구조현장 역량강화 방안 모색’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마포구조대에서는 지역단체를 통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본회에서는 구조대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배출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울주 구조대는 지부와 구조대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기존사업에 대한 진행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본회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였다.

태안구조대에서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과 관련하여 타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자격증 소지자의 교차인정 방안과 현장 특성화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구조·구난에 대한 교육과 잠수기능사 등의 교육 요청에 대해 건의하였다. 이에 본회에서는 교육연구본부와 교육기준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민간자격교육관리규정 마련으로 잠수구조사 등의 과정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금번 간담회는 약 4시간동안 상호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민홍기 이사장은 “앞으로 지역대장 간담회를 보다 자주 개최하여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며 지부와 지역대간의 의견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은 직접 방문하여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건의사항들은 앞으로 협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협회장 이·취임식

| 전남동부지부, 협회장 이·취임식

지난 12월 14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서 전남동부지부 협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해양경비안전서 김동진 서장을 비롯한 여수해양치안협의회 김영진 회장,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 노정열 과장, 전남동부 수산업협동조합 백인기 조합장, 득량농업협동조합 정영수 조합장, 광양시 왕영의 어민회장과 우리협회에서는 본회 민흥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전남동부지부 소속 구조대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개최되었다.

2013년 4월에 출범한 전남동부지부는 정채호 협회장이 약 3년 가까이 이끌어오며 지역의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과 선진화된 구난체계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신임 조병중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임기기간 동안 역점사업으로서 순천, 광양구조대를 창설하여 해양에서 안전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적극적인 동참과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하에 활동이 펼쳐진다면 우리 협회의 미래는 희망차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취임의지를 밝혔다.



▲ 임명장 수여식 (왼쪽부터 민흥기 이사장, 조병중 협회장)



▲ 취임행사장면



▲ 기념촬영



| 인천지부, 협회장 이·취임식

- 「낙시어선 구난대」 발대식 함께 열려 -

우리협회 인천지부는 지난 12월13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중회의실에서 인천지부 협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민홍기 이사장, 송일중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김환경 경비구조과장, 인천지부 구난대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하였다.

2013년 5월 인천지부 창립시부터 이끌어 온 박경서 협회장이 이임을 하고 신임 송주석 인천지부 협회장이 취임하였다.

송주석 신임 인천지부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해양구조협회가 창립되어 해양경찰과 함께 해난구조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어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우리 협회 대원들은 오직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해난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에 정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 지부 깃발을 힘차게 흔드는 송주석 신임 협회장

같은 날, 인천지부는 「낙시어선 구난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낙시어선 구난대」는 인천지부 회원 중 인천 남항, 송봉도, 영흥도, 시흥 오이도 등에 있는 낙시어선 선장 12명(12척)으로 구성되어 인근에 해양사고 발생 시 긴급 이동하여 인명구조, 선박예인 등 피해최소화를 위한 구조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송일중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은 축사에서 “인천해역은 저수심, 도서 산재로 해양사고 발생시 해경의 신속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인천지역 낙시어선 구난대의 활동은 해양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였다.



▲ 표창장 수여식



▲ 기념촬영

전국지부, 각 지역단체 및 기업과 업무협력 체제구축

| 통영구조대, 경상대학교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 상호협력 구축

통영구조대는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과 지난 11월 22일 깨끗한 바다 만들기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 체결식은 통영구조대 장종철 대장, 김태균 사무국장과 경상대 해양과학대학 김정균 학장, 안영수 실습선운영관리센터장, 이현웅 행정실장 등 5명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에서의 재난과 사고예방 대응을 위한 사업, 해양안전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 조난선박 예인서비스 및 해양 환경 정화사업, 해양사고 예방 구명조끼 생활화 및 안전사고 예방캠페인, 해양, 수산정책의 거버넌스 기능수행, 협력체 구성을 통한 역할 분담 및 유기적 협조, 협회 회원가입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상호협력 방안을 구축 할 예정이다.

장종철 대장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과 한국해양구조협회 통영 구조대 간에 해양안전 교육훈련, 예방캠페인 등과 관련하여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하였다.



▲ 통영구조대 장종철 대장, 김태균 사무국장과 경상대 해양과학대학 김정균 학장, 안영수 실습선 운영관리센터장, 이현웅 행정실장 기념촬영

| 강진구조대,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강진구조대는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난 11월 4일 전남도청 중소기업 종합 지도센터에서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6년 (사)푸른전남21협의회 설립을 시작으로 하여 2008년 녹색전남21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칭한 후 2016년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칭하여 그동안 20여년을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UN에서 권고하여 조직된 민·관·기업의 거버넌스 기구이다.

이번 행사는 강진구조대뿐만 아니라, 현대삼호중공업, 한국수자원공사 광주 전남지역본부 등 총 27개의 지역단체 및 기업들과 함께 협약식을 가졌다.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 동안 환경운동을 위주로 활동해왔으나 UN지속가능발전 목표이행을 위한 활동으로 전환하여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분야까지 조직을 확대 구성하고자 하였다.

강진구조대는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대정신에 기초한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사업 개발을 추진 하고, 분야별 세부실행 목표에 따라 실천사항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신선배 강진구조대장과 전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영진 대표 기념촬영



| 여수구조대, 한화아쿠아플라넷과 환경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여수구조대는 지난 11월 3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운영하는 한화아쿠아플라넷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화아쿠아플라넷은 순수국내 기술력으로 해양문화 가치와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해양생태계 모습을 전시하여 ‘해양문화 가치’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해양생물 보전을 위한 해양정화활동, 환경조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협력하여 본격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앞서 이미 여러 차례 환경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종고래 상괘이의 폐사원인을 찾기 위한 부검(2015년 6회, 올해 4회)과 지구의 날을 맞아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중생물의 적 불가사리 퇴치작업 및 불가사리를 이용한 작품 경연대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여수구조대는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환경보전활동 또한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 해양안전문화 전파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예정이다.



▲ 여수구조대와 한화아쿠아플라넷과 협약 기념촬영

| 충청북부지부, 지역단체들과 안전인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충청북부지부는 지난 10월 11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한서대학교 스포츠교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의 목적은 정부3.0기조인 국민중심의 안전의식 확산 실현을 위한 기관 간의 협업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이다.

협약체결 이후, 충청북부지부는 11월 5일, 태안군의 26개 해수욕장을 보유한 국립공원의 안전인식 강화를 위해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와 안전의식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충청북부지부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사고 발생 시 구조활동지원, 안전사고 예방홍보 및 캠페인 공동진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충청북부지부와 해안국립공원사무소, 한서대학교 스포츠교육원과 함께 업무협약식 이후 기념촬영

전국 구조대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 충청북부지부, 수중·수색훈련 실시

지난 11월 17일 충청북부지부는 민·관 합동으로 수중·수색구조활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122구조대 김진희 대장, 이재완 팀장을 중심으로 충청북부지부 전문 구조대원 12명이 참여하여 비상사태발생에 대한 가상훈련을 실시하였다.

충남 전체 34개 해수욕장을 중 83%가 집중된 30개가 태안군에 자리잡고 있어 충청북부지부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양 기관은 긴급 비상사태시 매뉴얼과 통합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여 인명과 재산손실을 최소화 하고 통제 지휘권을 원활히 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였다.

또한 태안해양안전서는 민간구조대의 역량강화를

위해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충청북부지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 단계별적으로 강화하는데 지원할 예정이다.



▲ 훈련준비중인 충청북부지부 구조대원들

| 여수구조대, 여수 해상서 '항공기 불시착 사고 대비훈련' 실시

지난 11월 15일 여수구조대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및 민·관·군 14개 기관 단체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시 오동도 앞 해상에서 항공기 해상 불시착 사고를 가정한 위기대응 합동훈련에 동참하였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항공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항공기 해상 추락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훈련상황은 인천공항을 이륙해 제주도로 비행하던 여객기가 여수 인근해상에서 연락두절 된 상황을 가정하여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의 사고접수를 시작으로 해상에 추락한 여객기 구조 슬라이드를 이용한 승객비상탈출과 응급환자 후송 등 유관기관 간 사고 수습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여객기 불시착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현장지휘소 운영 등 민·관·군이 합동으로 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여수구조대, 해상에서 해양경찰과 함께 항공기불시착사고 대비 훈련 실시



| 포항구조대, '해상 침몰차량 수중·수색 구조 훈련' 실시



▶ 해상침몰차량 수중·수색구조 훈련을 위해 잠수 중인 포항구조대원들

포항구조대는 지난 11월 12일 포항영일만 신항에서 해상침몰차량 사고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포항해양경비안전서와 함께 '민·관 합동 해상침몰차량 수중·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금번 훈련에서는 차량이 해상에 추락할 시, 차량 내 생존자 구조 훈련을 중점으로 실시하였으며 상호간 수

중·수색구조 기법을 공유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상호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유기적인 민·관 해상재난구조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강진구조대, 민·관·군 잠수사 합동훈련 실시

강진구조대는 지난 10월 24일 완도와 장흥 중간 해역에서 목포 중앙해양특수구조단 10명, 해군 SSU 5명, 강진구조대원 10명과 함께 민·관·군 잠수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해 긴급구조 지원, 민·관·군의 역할분담과 협조체제 강화 그리고 수색 구조에 투입되는 전문 잠수사들의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훈련을 위해 10톤 가량의 어선과 구조선, 나이트록스(Nitrox), 구조용 로프 등이 동원되었다. 특히 나이트록스는 일반공기보다 질소의 함량을 낮추고, 산소의 함량을 높은 공기를 사용하는 잠수탱크로 좀 더 안전하게 장시간 동안 다이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훈련 방법은 '사자스(Sajas) 수중탐색 방법'이다. 시야가 나쁘고 수색면적이 넓을 경우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색 지역을 설정하여 수면유영의 인솔자가 수중의 수색자를 이끌면서 하는 방법이다. 반드시 고도의 잠수기술이 필요하고 숙달된 잠수사들로 수색조가 구성되어야 한다. 실전훈련에서는 세 명의 수면유영의 인솔자를 지정하고 10여명의 잠수사들이 수중에서 수색작업을 하는 등 구조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훈련을 통해 강진구조대는 각 기관들의 잠수장비에 적응하고 다각적인 수중·수색 훈련을 통해 해난 사고발생 시 전문 잠수사들의 대응역량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ARSA NEWS | 지부/지역대 뉴스 |



- ▶ 수중수색을 위해 준비중인 잠수사들
- ▶ 기념촬영



| 통영구조대, '북 후방테러대비 대규모 인명구조 훈련'

지난 9월 22일 통영구조대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앞 해상에서 통영해양경비안전서가 주관하는 '후방테러대비 대규모 인명구조 훈련'에 참가하였다.



▶ 통영구조대, 헬기 및 선박 등을 이용하여 북 후방테러대비 대규모 인명구조훈련을 진행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 등 지속적인 도발로 우리나라 안보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테러 가능성이 농후한 임해중요시설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해상에서 LNG선을 탈취한 테러범이 해상을 통해 침투, 폭파 위협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초동조치 체계점검 위주의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실시되었다.

해상에서는 해경 경비함정 등 308함과 헬기 1대, 민·관·군 선박 8척이 투입되어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

였고 육상에서는 통영 1대대 병력과 자체방호 병력을 배치하여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역량을 강화하고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방 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관기관 여객선, 위험물 운반선, 국가중요시설 대상으로 지속적인 합동 훈련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경주구조대·포항구조대,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주관 ‘2016 수난대비기본훈련’

지난 9월 27일 영일만 신항에서는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주관 2016 수난대비기본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번 훈련에는 경주구조대와 포항구조대가 동참하였고 그 외 7개 기관들이 참여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총 헬기 1대, 함정·선 17척, RIB 5대가 투입된 이번 훈련은 지진해일 재난에 대비한 훈련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민·관·군 공동대응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훈련상황은 일본 아카다현 서쪽 연안에서 규모 8.0 강진이 발생하여 동해안 지역에 지진해일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상황전

파, 긴급대피, 인명구조, 오염방제의 절차대로 인명구조를 실시하고 화재진압 및 기름유출을 막기 위한 기본훈련이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민·관·군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각종 대형재난사고에 대비한 단계별 기관간 역할분담 및 각 기관의 능력배양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 훈련 전, 민·관 워크숍 진행



▲ 헬기 및 함정선 등이 투입된 훈련 진행 ▲

| 완도구조대, 민·관·군 잠수사 역량강화 합동훈련

완도구조대는 지난 9월 7일부터 이틀간 전남 완도군 일원에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와 9개 기관 180여명의 수중·수색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군 잠수사 합동 현지적응 훈련에 참여하였다.

이번 훈련은 최근 급변하는 해양기상에 따라 국가 자원만으로는 대응이 곤란한 대규모 해양사고발생 시 민간잠수사를 수색·구조 업무에 동원하여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훈련에 앞서 사전 워크숍을 통해 공공안전잠수(Public Safety Diver)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민·관·군 잠수사 간에 팀워크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시 대응강화 훈련이 진행되었고 올바른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완도 수산고등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

로 선박충돌 사고에 따른 인명구조 및 수중·수색구조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 간 체계적인 구조세력 동원절차와 잠수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등 수중·수색구조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체계를 강화 할 예정이다.



▲ 훈련 전, 민·관·군 워크숍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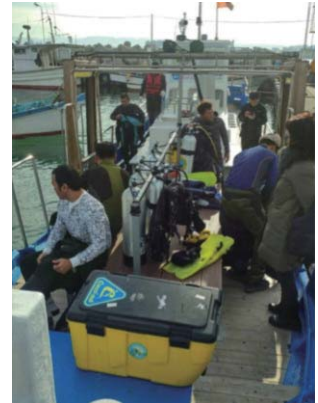
익수자 구조활동에 나선 전국 구조대원들

| 포항구조대, 포항시 두호동 방파제 익수자 수색

지난 12월 11일 포항시 두호동 방파제 앞바다에서 60대 여성 A씨가 해상으로 뛰어들어 신고를 받은 포항해양경비안전서와 포항구조대가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포항구조대에서는 수중수색조 11명과 구조선 1척을 투입하여 수색에 참여했으며 13일까지 이틀간 수색을 벌였으나 익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14일 오전에는 풍랑주의보로 인한 기상악화로 잠시 수색을 중단되었으나 오전 10시 30분경 익수지점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지점, 해안로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였다.

CCTV 분석결과, 60대 여성 A씨가 방파제쪽으로 가는 모습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평소에 신변을 비관했다는 주변진술에 따라 자살로 추정되나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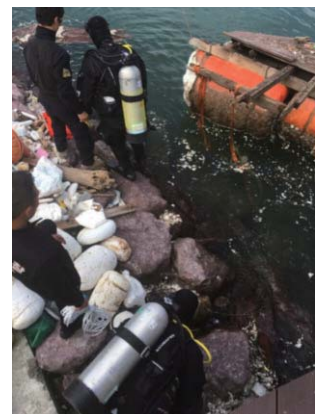
▲ 수중수색 전 잠수복 착용 중인 포항 구조대원들

| 창원구조대, 부산 가덕 대항항 실종자 수색활동

지난 10월 5일 오전 10시 30분경 가덕도 대항항 방파제 앞 해상에서 익수자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창원해경 122구조대와 창원구조대 유남석 대장과 구조대원들이 출동하였다.

실종자 허모씨(56)는 태풍차바의 영향으로 기상악화 속에 부두를 찾아 선박고박 보강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 중 강한 너울성 파도에 의해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모씨는 10월 8일 새벽 3시경 대항항 방파제 1m 앞 해상에서 숨진채 발견되었다.



▲ 실종자 수색작업 중



| 통영구조대, 산양면 함박마을 바다추락 차량내 익수자 구조



◀ 크레인을 이용하여 사고차량을 수습중인 통영구조대원들

지난 10월 5일 태풍차바의 영향으로 산양면 함박마을 인근 물량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였다. 사고 신고를 받은 통영구조대는 김태균 대원을 비롯하여 총 4명의 구조대원이 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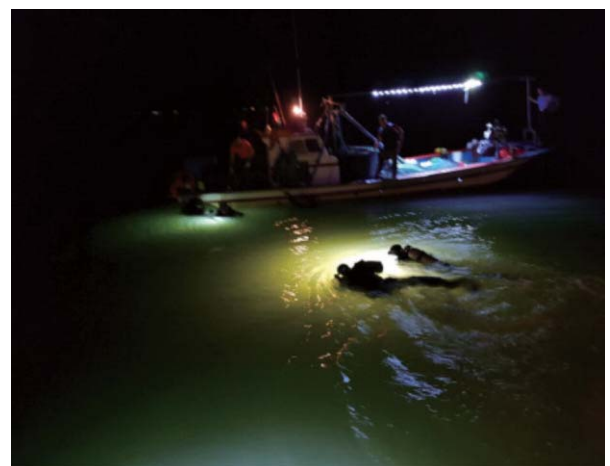
통영구조대원들은 차량 밖에 매달려 구조요청을 하고 있던 운전자A씨를 도착 즉시 물량장에 잠수하여 구조한 뒤 사고차량을 수습하였다.

| 고흥구조대, 전남보성 울포선착장서 승용차 추락 익수자 수색구조

지난 9월 28일 전남 보성군 회천면 울포선착장 앞 해상에서 자동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는 28일 오후 6시 5분 경에 추락관련 신고를 접수 하였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를 위해 고흥구조대 소속 양석훈, 이광선, 박준호 대원 등 3명의 잠수요원들과 함께 투입, 침몰 차량에서 탑승자 1명을 인양하였으나 숨진 채 발견되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승용차가 선착장에서 바다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돌진해 바다에 추락했다고 말하였다.



▲ 익수자 수색구조를 위해 잠수하는 고흥구조대원들

안전을 부탁해

수중·수색구조 합동작전 FTX

“전남특수구조대, 운전미숙으로 바다에 추락한 익수자 구조”,
 “통영구조대, 통영 욕지도 흑초등대 일원 익수자 수색구조”
 “고흥구조대, 보성읍포 익수자 수색구조 및 시신 인양”

최근 익수자 및 실종자 구조작업에 대한 소식이 우리구조대로부터 자주 들려온다.

얼마 전에는 강원도 초곡항 인근에서 익수자와 고립자를 구조하던 도중 해경특공대원 2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바다에서의 인명구조활동은 본인의 생명을 걸고 임하는 위험한 일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경찰 단독으로 구조활동을 펼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항포구에서 활동하는 우리 구조대와 구난대가 항시 대기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초동대응에 들어간다.

인명구조에 임하는 구조대원들은 일련의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서 구조방법을 습득한다. 실제 현장에서 민·관·군의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합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구조역량을 강화하고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중의 하나로 지난 9월 21일, 진해에서는 대규모

MIR-Dive FTX 제2차 수중·수색구조 합동작전이 펼쳐졌다. 이번 훈련에는 국민안전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30명, 해군 특수구조대 30명 그리고 우리협회 경남동부(창원)지부 특수구조대 20명이 참여하여 수중구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우리협회 경남동부(창원)지부는 수색구조활동, 하계인명구조센터운영, 소고도 안전관리활동, 민·관 합동훈련, 항포구 정화활동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특수구조대를 발대하여 반복훈련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올 한해 민·관 합동훈련 분야 업무유공을 인정받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한 경남동부(창원)지부 특수구조대 배한철 대원의 인터뷰를 통해 거대한 바다와 사투를 벌이는 그들의 훈련 뒷이야기를 들어본다.



▲ 수중 수색구조를 마친 구조대원들의 퇴수 장면

▶ 잠수장비 이용 수중 수색구조 훈련준비

경남동부(창원)지부
배 한 철 대원



MIR-Dive 합동작전은 어떤 훈련입니까?

대규모 해양재난사고를 가정하여 '실전형 합동훈련을 통한 사고대응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실제 사고 발생시 각 기관별 역할과 작동 가능한 현실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은 모의 사고현장에서 각 구조세력별 기동훈련을 시작으로 다수표류자 항공 및 수상(구조정)구조, 스쿠버, RAPID, Technical Diving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초기 현장상황 탐색, 해경·해군 합동수중탐색(침선) 및 한국해양구조협회 스쿠버 잠수장비 수중·수색구조 등의 합동훈련을 진행하였다.

구조훈련이 실제 구조활동에서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인명구조에서의 실수는 곧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각종 상황에 대한 실전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실제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인명구조활동을 펼칠 수가 있다.

이번 훈련의 특이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번 훈련에는 지난해 1차 훈련 때 보다 많은 장비가 사용되었

다. 수상에서는 해경, 해군의 헬기 및 보트가 익수자 구조에 투입되었으며 수중에서는 해경, 해군의 표면 공급식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수중·수색을 펼쳤다. 또한 우리협회 잠수사는 개인장비를 사용하여 별도의 지정된 침몰선박에서 해경선박을 이용한 수중수색 훈련을 펼쳤다. 각 장비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고 서로의 구조장비 숙달과 현장적응 훈련 등을 보다 강도 높게 실시하였다.

훈련 도중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수중 시야가 30cm도 되지 않고 바닥에서는 빨 등 이물질이 일어나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수상·수중수색을 마치고 선박으로 복귀하던 도중 너울로 인하여 선박에 오르는 작업이 만만찮다. 하지만 훈련 도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또한 훈련의 일환으로 받아드리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구조대 활동을 시작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1994년 스킨스쿠버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대처방법을 현장체험을 통해 처음 습득하게 되었다. 이후 인명구조강사 자격증 및 조종면허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인명구조방법, 장비사용법 등을 공부하였고 자연스럽게 협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활동시작부터 매년 민·관·군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구조활동을 통해서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양사고 발생 시 어느 한 기관만의 역량으로는 효과적인 구조대응이 곤란하다는 것을 세월호 사고를 통해 경험하였다. 평상시 구조세력들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습득했던 구조훈련방법과 바다에 대한 지식이 일반 구조활동에 좋은 쓰임새로 사용되면 더할 나위 없이 보람되고 한국해양구조협회 대원으로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이날 훈련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가 지나서야 끝이 났다.

훈련이 끝난 후 경남동부지부 특수구조대 전승운 대장은 "합동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직장에 휴가를 내고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대장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봉사는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훈련을 통한 해양사고 초동대응체계 대비가 더욱 강조되고 있어 전국 각 지역에서는 민·관·군 합동훈련을 통해 다각적인 현장상황을 조성하여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기 민간구조대원에는 우리협회 전국지부 구조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무장한 그들의 용감한 행보가 너울사랑을 통해 전해지길 바란다.

이날 훈련에는 본회 민흥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해군의 김종삼 준장, 해경의 이창주 총경 등이 참관하였다.

환경을 부탁해

국경을 넘은 해양쓰레기



최근 중국어가 적힌 음료수병, 음식물 포장지, 병뚜껑 등 중국현지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바다를 통해 떠내려오고 있다. 이를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라고 한다.

외국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해안으로 떠밀려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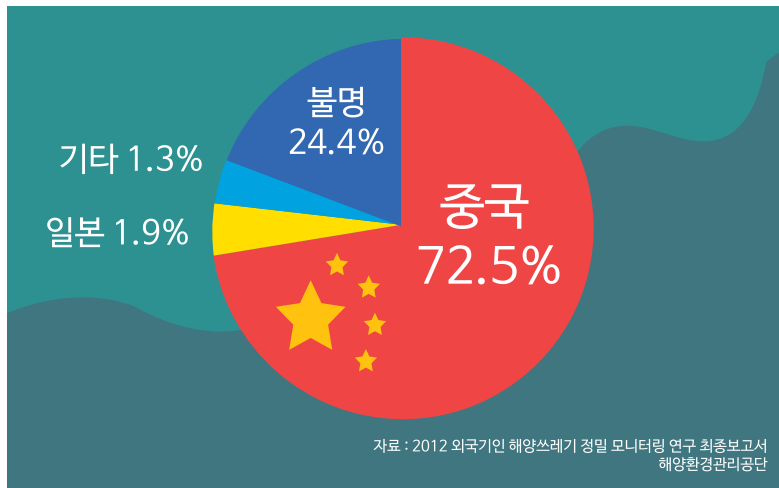
여름에는 중국남부에서 올라오는 해류와 남동풍의 영향을, 겨울에는 중국 북부에서 내려오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 전남 바다에 수만 톤에 이르는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전남 연안에서 자연발생 한 것보다 동남아,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 양이 훨씬 많아 국가적 차원 해결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해양쓰레기 중 5%는 이러한 외국기인 쓰레기이다. 그 중 72.5%가 '중국산'이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또한 해류와 바람을 따라 이동해 일본으로 이동한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쓰레기는 태평양으로 떠밀려 간다.

이처럼 해양쓰레기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이 아닌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NOWPAP(북서태평양

해양보전 실천계획)의 회원국으로서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016년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금을 지원받아 'APEC 역내 해양쓰레기 예방 및 관리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도까지 해양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부족한 인도네시아, 페루 등 11개 개발도상국 해양쓰레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피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되며 국제적으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자료출처 : 해양환경관리공단]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문제가 최근 더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부기관만의 해결책을 넘어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운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요즘, 우리협회 구조대원들은 해양정화활동을 위해 지역단체 및 관련기관들과 협업하여 쓰레기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그들의 숭고한 봉사 정신을 사진을 통해 담아본다.

전국 지부 및 구조대의 해양환경 정화활동 모습

| 통영구조대

10월 11일, 용남면 대안마을 환경정화활동



| 통영구조대

10월 16일, 도남동요트계류장 수중·수변정화활동



| 부산지부

10월 23일, 해운대 우동항 해안가 수중침전 쓰레기수거



| 장흥구조대

9월 23일, 장흥회진바닷가 수문 7곳 청소



| 남양주구조대

10월 16일, 한강수중·수변정화활동



| 경남동부(창원)지부

10월 23일, 진해구 속천 진해수협 위판장 연안수중정화활동



| 남구구조대

11월 20일, 울산해양조정면허시험장 주변 바지락 어판장 수중정화활동





공덕역 심폐소생술 캠페인

매일 '공덕역'에서는

11월 8일, 서울에는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공덕역에서는 추위와 싸우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협회 서울지부 구조대원들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캠페인'을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시작했던 이 캠페인은 벌써 햇수로 2년이 되었다.

서울지부 구조대원들은 대부분 재난안전지도사 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시간은 약 10여분 남짓, 한번 배우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투자해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습득이 가능하다.



▲ 서울지부 공덕역 심폐소생술 캠페인 교육



시민들의 인식변화

작년 4월, 한 초등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내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다. 엄마와 장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섰던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이수빈양은 쓰러져 있던 김 씨를 발견, 그에게 달려가 침착하게 흉부압박을 실시한 것이다. 결국 김 씨는 이양의 응급처치 덕분에 1분만에 호흡을 되찾았다. 평소 심폐소생술에 관심이 있었던 이수빈양은 마침 4시간 전인 이날 오후 3시 어머니와 함께 강서소방서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장을 방문해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례는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처음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다. 하지만 최근 대형사건 등 일련의 많은 사건사고들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현재 공덕역 심폐소생술 참가자는 매회 150~200여명으로 그 숫자가 증명해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포구청의 RTV 지역채널에도 서울지부활동이 소개되어 많은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정지 사망자 수는 연간 2만 5천여명으로 이는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 5,092명보다 약 4배나 높다. 하지만 그에 비해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3.1%에 그쳐 30% 대인 미국과 일본 등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 시행되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이 2~3배 향상된다.

뇌가 정지하기까지 걸리는 4분의 골든타임 동안 응급조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전보다 많은 인식변화를 체감하고는 있지만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대원들의 수고와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 많은 격려와 도움의 손길

11월 8일에는 서울 마포구(갑)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이 방문하였다. 사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2015년 이 캠페인 활동 시작부터 자주 이곳을 방문하여 서울지부 구조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접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도 함께 이끌어 오고 있다.

“심폐소생술은 말만 들었지 나 또한 무지했었다. 배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전에 나와 같이 모

르고 있다.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해양구조협회 구조대원들의 이러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안전의식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지할 것이고 나부터 솔선수범 할 것이다. 봉사자들에게 늘 고마움을 느낀다” 고 격려하였다.



▲ 마포(갑) 노웅래 의원이 격려차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이고 있다.



▲ 노웅래 의원 및 공덕역 역무원 그리고 우리협회 서울지부 봉사자들이 열의를 다지고 있다.

○ 서울시민 CPR 서포터즈 등록

약 4명~5명의 구조대원들이 각각 1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면 나머지 구조대원들은 집에서 혼자 연습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배포하거나 ‘서울시민 CPR 서포터즈 등록·활동 동의서’ 작성을 권유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민이 시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제공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민 CPR 서포터즈’ 등록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서울종합방재센터

와 함께 심정지 환자 발생시 근거리 심폐소생술 가능자에게 SMS를 발송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체계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다.

서울지부 또한 서울방재센터와 연계하여 ‘서울시민 CPR 서포터즈’ 등록에 앞장서고 있으며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 한해 1,400여명이 서울지부 심폐소생술 교육 이후 서포터즈로 등록하여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 점점 더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 김경수 용산구조대장 과 유수엽 마포구조대 부대장이 심폐소생술 설명서 전달 및 서울시민 CPR 서포터즈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 봉사는 무엇보다 꾸준하게 하는 것

서울지부는 매월 진행되는 공덕역 심폐소생술 캠페인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영유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역 동사무소 행사 등에 참여하여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구멍조끼 착용법, 물놀이 안전법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진행해 왔다.

또한 내년부터는 노인정, 경로당, 마포구 16개 동사무소 등 교육을 점점 더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여했던 최연순 강사는 “지금까지 어설픈게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심장을 누르는 건 알지만 정확한 위치나 방법을 몰라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나의 목표이고 보람이다”라고 말하였다.

김철재 마포구조대장은 “2년이 되어가다 보니, 가끔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낀다.

일반시민이 배우게 되는 동기는 가정 내에 환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경우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인다” 며 “이 활동은 나눔이다. 이러한 활동이 전파가 되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습득하여 부상자,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며 “이러한 활동들을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 최연순 강사



▲ 김희선 강사



▲ 김철재 마포구조대장

2016 하반기 교육

‘인명구조강사 12기’

인명구조강사 양성교육은 해양구조전문 봉사단체로서 선진해양안전 문화보급을 통한 ‘안전한 바다! 행복한 바다!’ 구축의 일환으로 전문가 양성과 지도능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협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20일까지 매주 3일간 총 60시간동안 인명구조강사 12기 양성 교육을 진행하였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 있는 교육인 만큼 엄격한 평가기준에 의해 진행되며 그런 만큼 그 과정도 만만치 않다. 총 14명 중 8명의 신청자만이 최종수료라는 결과만 보더라도 교육의 강도를 짐작할 수가 있다. 그 중에는 사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본교육에 참여자격을 잃은 신청자도 있었고 중도포기한 사람들도 있었다.

교육내용은 교육규정과 수영구조지도법, 장비구조지도법, 운반법, 종합구조술지도법, 이론강의법 등의 필기수업과 단거리 및 장거리 수영, 수영장비구조, 잠수, 운반법, 스킨장비구조, 실기지도법, 수영지도법, 생존수영 등의 실기수업을 함께 병행한다. 새벽6시 기상 후 체력단련을 시작으로 오전 중에는 이론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실기수업이 시작된다. 하루 일과는 밤11시가 되어야 종료된다.

약 보름간의 강행군을 견디고 최종 평가에 합격한 인원들은 강사 및 평가관 자격이 주어진다. 그 과정이 힘들었던 만큼 수료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가치는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부 및 지역대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하거나 이번 교육과 같이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들을 진행해왔다.

교육을 통해 선진해양안전 문화전파에 힘쓰는 전국지부 및 지역대들의 노력을 사진을 통해 담아보았다.

'인명구조강사 12기'



▲새벽 체력강화훈련



▲이론수업



▲실기수업



▲수료증 전달식



▲수료완료 기념촬영

| 지부·지역대 교육현장 모습



▲ 부산장애인청년연합회 장애인응급구조요원 양성과정 4기(재난안전지도사 2급)



▲ 원도구조대 : 제주해경 인명구조요원 교육



▲ 장흥구조대 :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 서울지부 :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



▲ 서울지부 : 해병대수색대대 인명구조교육



▲ 통영구조대 : 장애인 복지관 심폐소생술 교육



국내 뉴스



세월호 사고 동원, 사상死傷 민간잠수사 보상금 받는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11월 18일 중앙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월호 사고 시 수난구조 업무에 종사한 민간잠수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27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경우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7월 말부터는 수난구조업무중 부상을 당한 민간잠수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

해경본부는 개정된 수상구조법에 따라 당시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동원되었던 민간잠수사 143명 전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안내한 결과 이 중 55명이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신청내용에 대해 잠수병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의, 산업재해보상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및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보상금 심의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18일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다.

보상금 지급 여부와 부상등급 결정은 세월호 사고 시 동원된 기간, 세월호 사고 전후 입원·진료기록, 부상의 종류 및 부상과 수색작업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자 중 27명에게 총 8억 6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2014년 5월 말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故 이○○ 잠수사에 대해서는 수중작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이 인정되었고, 올해 6월 사망한故 김○○ 잠수사에 대해서는 수색작업 기간 중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만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나 아주 경미한 부상을 입은 28명의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해경본부는 11월 중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상등급과 보상금액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연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정해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본부는 세월호 사고 시 수중수색에 동원되었던 143명의 민간잠수사에게 수난구조종사비용으로 잠수사의 경우 1일 기준 98만원씩 총 60억 4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게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치료비 전액(약 1억 8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 국민안전처]



국내 뉴스

어업현장 어디에서든 아프면 원격으로 진료 가능

동해어업관리단, 연근해 어선원 대상 해상 원격의료 서비스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동해어업관리단은 11월 18일부터 내년 4월까지 '연근해어선 해상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연근해 조업현장의 의료서비스 지원은 공중보건 의사가 수행하여 왔으나, 동 사업을 통해 부산대학교병원 해상의료연구센터와 협업하여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거리 해상의 조업 어업인들도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1천톤 급 국가어업지도선 2척과 부산대학교병원(해양의료연구센터 및 응급의료센터)에 위성원격의료 화상시스템을 설치한다.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바로 진료 받을 수 있으며 협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산대병원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의료인 간 원격협진', '의료조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의료인간 원격협진 :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따라 화상통신 등을 활용,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진료
- 의료조언 : 선원법 제88조(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에 환자에 대한 의료조언을 요청하여 진료 처치

동해어업관리단은 연근해 조업 어선원의 의료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지난 36년간 공중보건의를 어업지도선에 승선시켜 국내에서 유일한 '바다 위 응급실'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감소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건당국은 2017년 공중보건의 배치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기관과의 꾸준한 협의 하에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부 3.0의 일환으로 해상원격의료 지원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상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그간 한일중간수역, 대화퇴수역 등 먼바다 조업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상의료를 지원하였으나 모든 해역의 의료수요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시범기간을 통해 응급의료 지원은 물론 광범위 해역에서의 원격의료 유효성 등을 검증하여 이후에는 동,서,남해 모든 해역에서 원격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지역별 거점병원을 구축, 연계하여 타박상 등 일반질환은 물론 급성만성질환 등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해상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해나갈 예정이다.

[출처 : 해양수산부]

국내 뉴스

낚시할 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11월 30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법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1월 30일(수)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6. 5. 29. 개정 공포)을 시행한다. 그간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는 필요시에만 착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선장을 포함하여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이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낚시어선 승객은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선장은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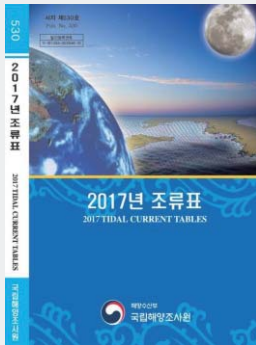
그리고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대상자를 선장에서 선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나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업과 낚시터업의 폐업신고를 관할 세무서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편의도 증진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낚시어선업계가 자율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낚시 안전을 위하여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개정된 낚시관리법이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낚시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해양수산부]





국내 뉴스

해상활동의 필수정보! 조류潮流를 읽는다.

국립해양조사원, '2017년 조류표' 발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류재형)은 선박통항이 많은 주요 항로와 물길이 좁아 강한 유속이 형성되는 협수로에 대한 조류 예측정보를 담은 '2017년 조류표'를 발간했다고 지난 12월 15일에 밝혔다.

조류는 달과 태양, 지구 간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해수면 승강운동인 조석에 동반되는 주기적인 해수의 흐름을 의미한다. 조류는 해안선 또는 해저 지형 형태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인접한 해역에서도 조류의 크기와 방향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조류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 선박 항행 및 어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므로,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12월 연근해 해역에 대한 조류표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다. 조류표에는 일별 최강유속이 나타나는 시간과 유속·유향, 전류시간*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며, 자세한 설명이 함께 수록되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전류시간 : 조류의 흐름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짧은 시간 또는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

올해 발간된 제8판 조류표에서는 인천, 목포, 여수, 부산 등 주요 항만 인근 항로와 명량수도, 노량수도 등 주요 협수로 99개 지점의 조류예측정보를 수록하였다.

※ 작년 제7판에 수록한 90개 지점에 염하수도, 거차수도 등 9개 지점을 추가함

또한 작년까지는 조류 움직임 예측시 1개월 간 관측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지점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장기 관측을 실시하여 얻은 자료로 예측자료를 산출하여 수록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정확한 조류 정보를 아는 것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해와 사고 발생시 구조작업 수행, 해양레저 활동에 큰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도 매년 조류표를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다만 조류는 해류와 기상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조류표를 활용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2017년 조류표'는 전국 수로도서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조류 예보 및 실시간 관측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과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APP, 종합해양정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해양수산부]

‘잠수구조사’ 신설

| 관련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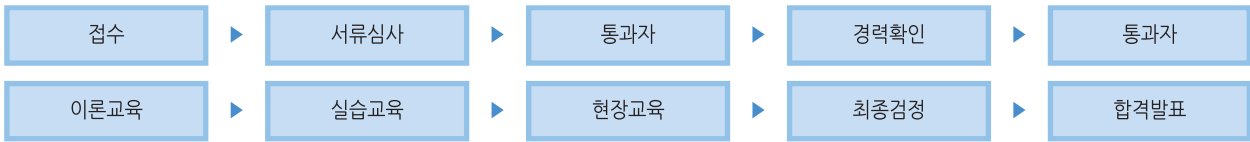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요구되는 잠수작업 취업자격은 국가기술 잠수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증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으며, 무자격 잠수사에 속함.

| 내용

민간자격 등록 수색구조교육의 심화과정으로 『국가인증 잠수기능습득 교육』 잠수관련 법령, 물리, 생리, 장비, 작업, 실기실습 등 잠수작업의 다양한 기능습득을 기회제공하며, 지부 조직관리 및 구조 활동에 기여

- 교육비용 : 자격증 발급비 (2급 5만원, 1급 10만원)
- 교육절차

• 문의 : 070-8785-6183, 010-3293-1119 김윤섭 부장



교육내용 및 평가방법

| 교육내용

분류	과정	과목명	교육시간	계
2급 (기본)	이론	4과목	16시간	8개 과목 총 32시간
		1. 잠수관련 법령 2. 잠수물리의 이해 3. 주중장비, 안전보호구 점검 등 4. 수중장비 사용 및 점검 요령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실기	4과목	16시간	
		1. 고기압하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2. 수중작업 방법,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3. 장비측정기구 활용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응급처치 능력에 관한 사항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 평가방법

등급	평가항목	배점비율	평가방법	합격기준
2급	이론시험	40%	• 잠수법령 교육 및 객관식 4지 선택형 20문항	비공개
	실기시험	40%	• SUPER-LIFE17 헬멧 장비명칭 설명 및 사용법 • 수중작업물 실습 및 잠수도표 작성	정확도 평가
	구술면접	20%	• 각종 해양사고 현장경험 및 구조봉사 활동경력 • 잠수구조사로서 활동방향	현장평가
최종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100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으로 한다.			

협회후원안내

1) 월 정기후원 안내

- CMS 출금동의서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0101-0122-0122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2) 특정목적사업 후원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3) 후원회원이 되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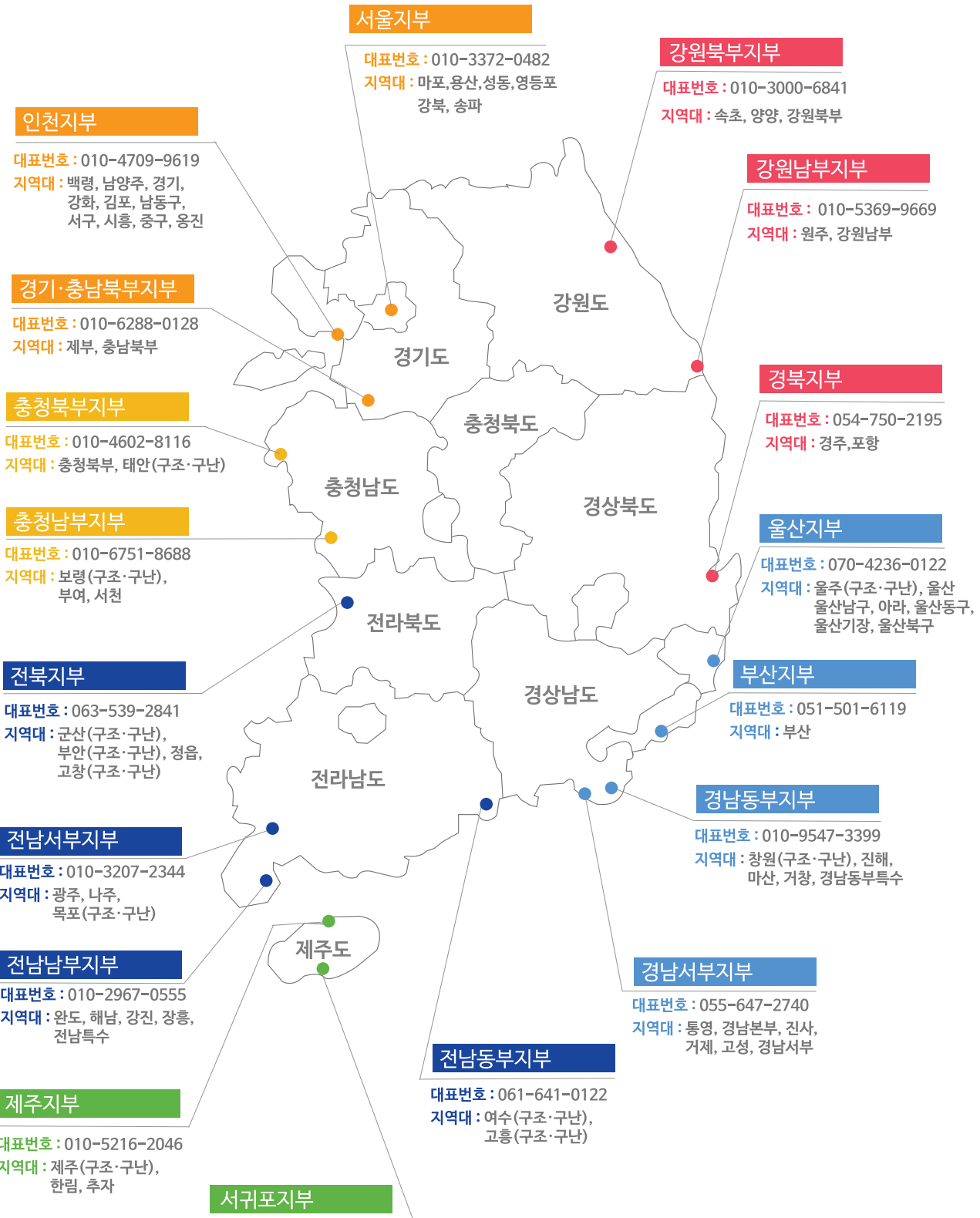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marsa122@marsa.or.kr |



각 지역 지부 및 구조대 연락처



※ 지역대 : 구조대, 구난대, 봉사대, 교육지원대

국내 유일 친환경 준설토 공기압송선 및

특수 공법선을 보유한 해상 준설 전문 기업



KR3000 공기압송 및 그라브 준설선

- *가수를 하는 기존 바지엔로더와 달리 압축공기를 이용한 신개념, 친환경적 준설토 이송 방식(최대 2,000m)
- *35m³ Bucket 2기를 이용한 준설 작업(1,500m³/h)
- *준설 작업과 동시에 바지엔로딩 작업 수행 가능



KR1500 공기압송선

- *가수를 하는 기존 바지엔로더와 달리 압축공기를 이용한 신개념, 친환경적 준설토 이송 방식(최대 2,000m)
- *5m³ Back-hoe 2기 사용 바지엔로딩 작업(1,000m³/h)



KRG25 그라브준설선

- *Counterweight와 유압식 Bucket 적용하여 동급대비 유류 소비량 대폭감소, 작업속도 및 생산성 증대
- *20m³ 수평커팅식 유압 Bucket으로 정밀 시공 가능
- *2기의 Spud를 이용 신속 전진하므로 협수로 및 항로 준설 작업에 용이함



KORSAL B-5 Backfilling 작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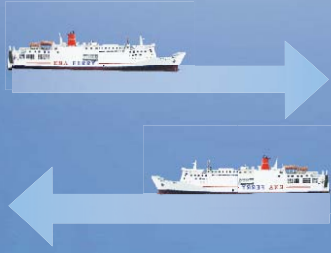
- *12m³ Back-hoe 탑재 호퍼, 포설관을 통한 균등한 살포(수심 5~25m, 1,200m³/h)
- *GPS, Sounding lead를 통한 정밀한 시공
- *모래, 산토, 사석 포설 작업에 용이



장비임대업, 해상준설, 해상공사, 해상운송
KR준설 주식회사

(49000)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15번길 1, B301호(청학동, 부산조선빌딩)
T.(051)714-0477 F.(051)441-9786
E. krdredging2012@daum.net
www.korsal.com

부산
Busan



제주
Jeju

정기 여객선 취항



부산·제주 매일 **오후 7시** 출항 / 부산·제주 매일 **오전 7시** 입항

ENA

(주) 동북아카페리
ENA CAR FERRY CO., LTD.

여객 예약전화

1661-9559

부산 051)461 - 0064
제주 064)805 - 9118

화물 예약전화

CJ 대한통운

부산 051)643 - 2111
제주 061)758 - 2790